

# “이미 문화 아이콘”... ‘겨울왕국2’ 1천만 돌파

# 유산슬, 어디까지 갈거니...

유재석 라면가게 알바 방송 ‘놀면 뭐하니?’ 시청률 8.5%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가 개봉한 지 17일째인 7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 2’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누적 관객 수 1천만2577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역대 27번째로 ‘1천만 클럽’에 가입했다. 외화로서는 8번째다.

올해 ‘극한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에 이어 다섯번째 1천만 영화다. 한 해에 다섯 편의 1천만 영화가 탄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겨울왕국 2’는 개봉한 지 46일만에 1천만명을 돌파한 전편보다 훨씬 빠르게 같은 기록을 세웠다. 전편의 최종 스코어로 1029만6101명을 쓴 기록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두 작품 모두 1천만을 돌파한 ‘쌍 천만’ 영화가 됐다.

‘겨울왕국 2’의 크리스 박·제니퍼 리 감독은 국내 관객 1천만 관객 돌파 소식에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 매력적인 서사·N차 관람의 힘  
‘겨울왕국 2’가 단기간에 1천만을 돌파한 데에는 전편의 영향이 컸다.

국내에 2014년 개봉한 1편은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던 ‘렛 잇 고’(Let It Go)의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미 기대감이 커진 관객들은 2편 개봉 전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1편의 후광효과가 컸다”며 “1편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그냥 재밌는 영화 정도가 아니라 일생의 추억이나 개인적 체험과 관련된 영화다. 이미 ‘겨울왕국’은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 평론가는 “개봉에 규칙성이 있는 마블 영화와는 달리 ‘겨울왕국’ 속편은 언제 나올지 몰랐던 이유로 크다”고 덧붙였다.

역대 27번째·올해 5번째...애니메이션 최초 ‘쌍 천만’ 매력적인 서사·N차 관람의 힘 ...스크린 독과점 논란



21일 용산 아이파크를 CGV씨네샵에서 관객들이 ‘겨울왕국’ 관련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봉 후에는 1편만큼 매력적인 서사가 관객을 사로잡았다. 커진 스케일로 1편에서 궁극증을 자아냈던 부분을 풀어내면서도 더 예측불가능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1편과 마찬가지로 OST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엘사의 마법에 얽힌 과거 이야기와 시각적인 스펙터클의 힘이 컸다”며 “여성 서사 등을 빼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설명했다.

윤 평론가는 “1편보다 음악과 장면이 1편보다 더 맞아떨어졌다. 특히 엘사가 ‘쇼 유어셀프’(Show Yourself)를 부르는 부분 등은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됐다”고 평가했다.

가족 관객·N차 관람(다화차 관람)과 4DX 등 다양한 상영 포맷 힘도 컸다.

CGV 관객 분석에 따르면 개봉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겨울왕국 2’를 관람한 관객 중 40대가 33.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자녀 등 가족을 대표해 40대가 티켓을 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N차 관람 비중은 6.5%로, 다른 상위 10개 영화의 N차 관람 비중(1.6%)은 물론이고 1편의 N차 관람 비중(4.7%)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4DX에서도 ‘겨울왕국 2’는 사상 최다 흥행을 기록 중이다. 개봉 13일만인 지난 3일 이미 30만 관객을 동원했다.

◇ 흥행의 명암...굿즈 판매도 활발·일각서는 상영관 ‘독점’ 주장  
영화 흥행과 함께 엘사 드레스부터 인형 등 관련 상품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실제 극장에서 엘사 드레스를 입고 영화를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CGV에 따르면 영화관 내 씨네샵 매출은 ‘겨울왕국 2’ 개봉 이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5% 늘었다. ‘올라프 키링’과 같은 저렴한 상품부터 OST가 흘러나오는 ‘노래하는 엘사 인형’ 등이 인기 상품이라



고 CGV는 설명했다.

‘겨울왕국 2’의 흥행은 여러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스크린 독점 논란이 대표적이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해소

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는 “스크린 독과점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향해 “영화법을 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회의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겨울왕국 2’의 흥행을 스크린 몰아주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미 검증받은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관객의 선호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강유정 평론가는 “‘겨울왕국 2’가 차지했던 스크린 중 상당수를 다른 영화에게 줬을 때 이만큼 흥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겨울왕국’이 가진 상징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오역 논란도 일었다. 관객들은 초반 안나의 대사와 엔딩 부분에서 안나가 엘사에게 보낸 편지에 오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날개를 단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않는다.

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방송한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 시청률은 8.5%를 보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썼다.

전날 방송에서는 ‘유산슬’ 유재석이 라면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유재석이 일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정차르트’ 정경천과 ‘작사의 신’ 이건우는 유산슬 신곡 ‘라면인생’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즉석에서 할머니, 라면, 인생 등을 키워드로 노래를 뽑아내 즐거움과 재미를 동시에 안겼다.

앞서 유재석은 유산슬로서 실제로 신곡을 발표하고, KBS 1TV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유산슬



유산슬이 출연한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 시청률은 8.5%를 보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1집 굿바이 콘서트’를 예고하기도 했다. 유산슬의 활약에 트로트와 전혀 관련 없는 한국중시연명은 “소외된 메뉴 ‘유산슬’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며 유재석에게 감사패를 수여, 웃음을 자아냈다.

김태호 PD와 유재석 콤피미의 저력을 재확인시켜준 ‘놀면 뭐하니?’는 방송 회차가 쌓일수록 점점 소재, 활동반경, 플랫폼 구분 없이 제대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며 돌의 제2 전성기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 다채로운 캐릭터 향연... 토요일 ‘두번은 없다’ 11% 넘어

‘CEO’ 윤여정을 비롯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들이 시청자 눈을 붙들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분부터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토요일 ‘두번은 없다’ 시청률은 7.5%-9.9%, 9.9%-1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전날 방송에서는 금박하(박세완 분)가 오인숙(황영희) 계락에 빠져 절도범이 될 뻔한 것을 나혜준(곽동연)이 구해줬다.

윤여정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관심을 끈 ‘두번은 없다’는 여인숙을 배경으로 재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등을 맞닥뜨리게 그린다. /연합뉴스

‘카리스마’ 윤여정의 연기도 반갑지만 명랑하고 쾌활한 매력의 박세완과 무심한 척 배려하는 광동연 간 로맨스, 철없는 연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오지호와 어디서나 감초 역할을 하는 예지원,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같은 송원석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중반부에 돌입하면서부터는 박세완의 순수한 매력에 푹 빠지면서 시청률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KBS 2TV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20.2%-24.0%, JTBC 금드극 ‘초콜릿’은 4.603%(유료 가구)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찾 좀 보실래요
0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이웃집 찰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식탁의 기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특조팀-교육청 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슈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MBC스포츠 제73회 전국남녀 종합탁구선수권대회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차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가 놀자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2019 KBO 골든글로브 시상식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렀다(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0	00 가요무대	00 개는 훌륭하다		00 VIP
11	00 더 라이브 40 송년음악회 나의 기타 이야기	20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파업전야)(재)	10 언니네 생롱	10 동상이몽 2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생활의 발견		35 UHD 영상 스페셜 산책	3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와일드 로드, 로키)
09:30 원더볼츠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겨울, 강원도의 맛 1부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둘씩이다, 동해 바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9일(음 11월 13일 庚辰) ☎ 010-9790-8237

	36년생 확연한 차이를 보이리라. 48년생 즉시 초저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60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72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 84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96년생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63, 96		30년생 하나가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42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54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66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78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구도이다. 90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68, 70
	37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49년생 상대의 단점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61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73년생 긴요한 문제에 분할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85년생 성공의 기쁨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97년생 정성을 다 해왔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3, 55		31년생 재판사를 살리 위주로 바라보고 조용해야 한다. 43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55년생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뜻대로 하게 처하라. 67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박한 시기는 계기가 된다. 79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91년생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5, 64
	3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쁨이 이루어지리라. 50년생 치열하고 치밀하게 살아야 할로가 트인다. 62년생 참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74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86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98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2, 94		32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44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56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68년생 한 발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92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2, 07
	39년생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리라. 51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신바람 나게 되어 있다. 63년생 기본 노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75년생 뭉쳐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87년생 실리가 따를 것이다. 99년생 방치한다 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9, 43		33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45년생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풀리게 되어 있으니 마음 놓아라. 6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81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93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2, 49
	4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52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64년생 다시 시작 된다. 76년생 본격적으로 임하기 이전에 검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88년생 가볍게 여겨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00년생 지나친 낙관은 빈틈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76, 69		34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58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70년생 정확하게 실행해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82년생 평소 애써왔던 것이 힘이 된다. 94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30
	41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53년생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65년생 변화가 온다. 77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숨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01년생 집중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8, 03		35년생 특별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47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겠다. 59년생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 71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83년생 힘줄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95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0, 29